전기관련 중소기업 업체들의 신제품 소개 및 신기술 동향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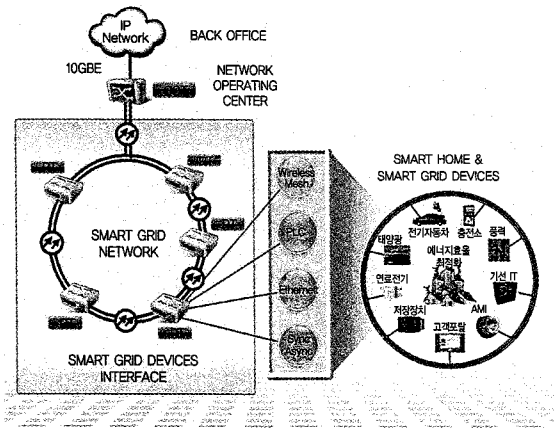
스마트 그리드 통합플랫폼

송암시스콤주식회사

(주)송암시스콤(사장 이해규)은 전력산업 및 전력IT 분야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노하우, 기업에 대한 깊은 신뢰성, 지속적인 신기술 · 신제품 개발로 전력IT 구축과 스마트 그리드 산업 확산을 선도해 온 회사다. 최근에는 개발 중인 스마트 그리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규 국제표준에 신속히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확보하여 해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기반 네트워크기술과 스마트 그리드에서 요구하는 Packet Lossless 기술을 최적화한 플랫폼 개발을 위해 한전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 2011년 PES에서 기반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수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그리드 통합플랫폼을 통해 배전현장 내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의 ICT 인프라(간선망) 통신기술 및 간선 통신망에서의 신뢰성 및 Resilience 기술을 확보하고 스마트 배전, AMI 시스템 등 스마트 서비스에 필요한 안정된 자체 ICT 인프라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통합플랫폼은 IEC61850, IEC62439, ITU-T G.8032 ITU-T, Y.1731, IEEE 1588v2와 같은 국제표준을 적용한 제품이다. 2020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단말의 출현으로 이들을 통합 수용할 수 있는 안정된 간선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 요구되는 Packet Ring 기술 및 Multi-Ring 환경에서의 ERP(Ethernet Ring Protection) 표준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그리드 통합플랫폼을 통해 안정된 간선망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송암시스콤은 최고경영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등 전력산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접속망과의 연계 및 표준화된 운영기술 개발 완료를 통한 다양한 요소기술 확보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KEA